



즉시 배포용: 2018 년 12 월 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

**주분형 포도 품종 생산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130 만 달러 규모의 포도원 개선 프로그램(Vineyard Improvement Program) 개시**

**새로운 콩코드 포도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주지사의 콩코드 포도 정상 회의(Concord Grape Summit)에서 최초로 발표한 포도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포도 재배자가 포도원을 개보수하고 포도원 운영을 다각화하며 새로운 포도 품종을 심어서 생산성을 늘리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도원 개선 프로그램(Vineyard Improvement Program)에 130 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일을 비롯해서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정부는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이 새로운 콩코드 포도 품종을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판매 기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4 월에 최초로 개최된 주지사의 콩코드 포도 정상 회의(Concord Grape Summit)에서 탄생한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최대 콩코드 포도 산업의 본거지인 뉴욕주는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의 포도 재배자와 그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뉴욕의 가장 훌륭한 농업 자산 중 하나를 활용하여, 포도 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이리(Lake Erie) 전 지역의 호수가에서 재배된 콩코드 포도는 뉴욕주의 다양한 농업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포도원 개선 프로그램(Vineyard Improvement Program)과 올해 뉴욕주에서 처음 개최된 콩코드 포도 정상 회의(Concord Grape Summit)를 통해,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포도 산업과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번 투자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도원 개선 프로그램(Vineyard Improvement Program)을 통해, 셔터퀴, 카타라우구스, 앨러게니, 스투벤, 스카일러, 톰킨스, 셔명, 티오가, 브룸, 셔냉고, 델라웨어, 나이아가라, 이리 카운티 등지의 콩코드 포도 재배자는 포도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5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레이크 이리 지역 포도 프로그램(Lake Erie Regional Grape Program)이 관리합니다. 신청서는 [www.lergp.com](http://www.lergp.com)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을 위한 새로운 품종과 시장을 찾기 위해,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인 약 145,000 달러의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기금은 45만 달러 이상의 총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코넬 대학교(Cornell) 및 뉴욕 와인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지원과 연계됩니다. 3개년 프로젝트의 목표는 식품 과학 연구와 품종 개발을 통해, 콩코드 포도 재배자와 가공업체의 수익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농업 및 생명 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ALS)은 콩코드 포도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 분석한 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마케팅 및 공급망 분석, 새로운 콩코드 포도 품종 및 성분 관련 소비자 기호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식품 과학 연구는 콩코드 포도 연구를 위한 2018-19년 주정부 예산(2018-19 State Budget)에 책정되어 재정이 지원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콩코드 포도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주입니다. 버펄로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 이르는 호수 해안을 따라 포도 재배에 알맞은 32,000 에이커 규모의 토양으로 덮여있는 레이크 이리 포도 벨트(Lake Erie Grape Belt)에는 800곳이 넘는 포도원과 22곳의 와인 양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농장들은 콩코드 포도를 15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도는 주스용으로 판매되지만 젤리, 마멀레이드, 와인 등에도 사용됩니다.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콩코드 포도 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로써 매년 3억 4,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의 콩코드 포도 재배업체들은 주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와 포도 가격을 낮춘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스와 젤리 생산 사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 중단이나 생산 감소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콩코드 포도 정상 회의(Concord Grape Summit)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포도 재배자를 새로운 시장에 연계하기 위해 주정부가 기울인 새로운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콩코드 포도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뉴욕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포도의 역사와 중요성을 관람객에게 알리기 위해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York State Fair)에서 포도의 날(Grape Day) 개최.
- 새로운 콩코드 포도 마케팅 기회와 포도 주스의 기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114,000 달러의 시장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Market Development Grants Program) 개시 학교, 식당, 수제 주류 산업에서 콩코드 포도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조금이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 그로우뉴욕시(GrowNYC), 뉴욕 와인 포도 재단(NY Wine and Grape Foundation) 등에 제공되었습니다.
- 시카고, 올랜드, 뉴욕시 등지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비롯하여, 국내 및 국제 무역 박람회에서 포도 산업 홍보 강화.
- 이 산업을 위한 수출 기회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워크숍 기획
- 콩코드 포도와 주스의 정보를 레스토랑과 다른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콩코드 포도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뉴욕의 그로우뉴욕시(GrowNYC)와 협력하는 콩코드 크러시 해피 아워(Concord Crush Happy Hour)와 같은 특별한 프로모션 행사.
- 뉴욕주가 지원하는 코넬 칼스 포도 품종 개량 프로그램(Cornell CALS grape breeding program)으로 개발한 사상 최초의 씨 없는 콩코드 포도인 에베레스트 시들리스(Everest Seedless) 출시.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콩코드 포도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마케팅 활동과 홍보를 늘려서 콩코드 포도 제품을 만드는 우리 재배자와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성취를 기반으로 포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콩코드 포도 재배 주로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근면한 포도 재배자들이 뉴욕주의 농업 산업에 미친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부의 수제 주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구 및 마케팅에 대한 이번 투자를 통해, 우리는 그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고 경제를 더욱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Bill Mag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콩코드 포도 산업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이번 지원은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혁신적인 새 품종을 생산하고 개발하여 마케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포도 재배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의 Kathryn J. Boor 로널드 피. 린치 학장(Ronald P. Lynch De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콩코드 포도의 본산지입니다. 코넬 대학교 출신 전문가 세대들이 뉴욕주의 포도 재배자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콩코드 포도를 생산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기금은 해당 지역의 전체 재배자의 포도원 운영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품 과학자들이 포도 시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재배자와 생산자 그리고 모든 곳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로우뉴욕시(GrowNYC)의 Marcel Van Ooyen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우뉴욕시(GrowNYC)의 그린마켓 프로그램(Greenmarket program)은 지난 몇 년간 뉴욕시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농장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콩코드 포도의 홍보를 돕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뉴욕시 여기의 레스토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포도 재배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뉴욕주 와인 포도 재단(NY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Sam Fill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인용 포도 산업을 위해 주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신 일과 마찬가지로, 콩코드 포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콩코드 포도 재배자들은 여러 세대 동안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이 품종은 뉴욕 최고의 포도입니다. 따라서 뉴욕주 와인 포도 재단(NY Wine and Grape Foundation)은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콩코드를 뉴욕과 동의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의 Erica Goodman 뉴욕주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12 학교들이 콩코드 포도와 주스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및 Ball 커미셔너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타 지역사회 기관들이 뉴욕에서 재배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현지 농민의 이익과 뉴욕 주민의 건강에 좋은 일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